



■ KIA 일본 미야자키현 마무리 캠프

- 외야수 이용규 새 각오

“내년 화려한 부활포 쏠겠다”

하루 평균 800개 이상 타격 연습

틈틈이 러닝·웨이트...체력 보강

“내년엔 무조건 2006시즌 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KIA 외야수 이용규(22·사진)가 ‘어게인 2006’을 선언했다.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이용규는 내년 시즌 목표를 ‘무조건 2006 시즌보다 잘하는 것’으로 정했다.

2006시즌엔 타율 0.318, 38도루를 기록하며 최고의 시절을 보낸 이용규지만 올해엔 발목 부상 등으로 타율 0.280, 도루 17개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김종모 KIA 수석코치는 13일 “이용규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 평균 800개 이상의 볼을 때려내며 배팅훈련에 열중하고 있다”면서 “손바닥에 잡힌 물집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러닝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용규와 일본일담.

-지난 시즌을 되돌아 본다.

▲발목 부상으로 스프링캠프에 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운동이 부족했고, 배트 스피드가 늦어지는 등 부진이 계속됐다. 이후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럴수록 더욱 수렁으로 빠진 느낌이었다. 시즌 막바지에 타격감을 되찾은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또 상대팀의 견제가 심했고, 약점이 노출된 것도 부진의 한 원인이었다.

-현재 마무리캠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훈련은.

▲배팅훈련과 체력훈련이다. 티 배팅, 특별타격훈련, 야간훈련 등을 통해 평균 6바스(1바스 볼 150개) 정도 때려내고 있다. 현재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지만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았다. 올 시즌을 치르면서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 이번 마무리캠프에선 부족한 체력을 다지기 위해 러닝과 웨이트트레이닝을 꾸준히 하고 있다.

-타격 자세 등 보완하고 있는 점은 없나.

▲타격폼이 조금 바뀌었다. 스윙 각도가 전에는 높혀져 나왔는데, 현재는 곧바로 내려 찍듯이 궤도를 수정했다. 또 타격 자세도 예전엔 가슴 부위에서 배트를 잡고 있다가 타격시 어깨 높이로 올린 후 스윙을 했는데, 손높이를 어깨까지 올려서 잡고 있다. 타격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진 듯 하다.

-현재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운동에 너무 집중해서인지 체력적으로 약간 힘들다. 하지만 어차피 이겨나가야 할 상황이고 그동안 못한 훈련을 여기에서 많이 하고 싶다. 체력보강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실시하며 내 자신을 테스트 중이다. 몸상태는 매우 좋다.

-내년 시즌 목표는.

▲무조건 2006시즌보다 잘하는 것이다. 타율도 3할을 넘기고 도루는 30개 이상 하고 싶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렇게 해봐!

13일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구장에서 열린 야구대표팀 전지훈련 둘째 날, 대표팀 포수인 진갑용(왼쪽부터), 강민호, 박경완, 조인성이 송구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규-김동주-이대호 ‘헥타선’ 포진

■ 김경문호 라인업 윤곽

박진만-유격수, 김동주-3루

박경완은 주전 마스크 쓸 듯

치열한 생존경쟁을 뚫고 2008년 베이징을 립픽 아시아 예선에 나갈 야구 대표팀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뒀 주인공들의 얼굴이 서서히 가려지고 있다.

야구 대표팀 사령탑인 김경문 감독은 최종 24명 엔트리 조합으로 ‘9(투수)-2(포수)-8(내야수)-5(외야수)’ 구상을 밝혔고 후보 31명 중 외야 요원인 좌타자 이진영(SK)을 13일 제외시켰다.

이중 27명만이 27일 대만에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최종 24명을 추려야 한다. 주전 경쟁이 진행중이지만 최상의 전력을 발휘할 드림팀 ‘베스트 9’과 마운드 운용 계획 및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포수 부문은 박경완(SK)이 주전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고 진갑용(삼성)과 조인성(전 LG), 강민호(롯데)가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다툰다.

내야수는 8명 모두 김경문호 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격수 박진만(삼성)과 2루수 고영민, 3루수 김동주(이상 두산), 1루수 이

대호(롯데)로 굳어가는 분위기다. 장성호와 이호준은 지명타자 후보다. 2루수 정근우(SK)와 3루수 이현곤(KIA)은 고영민과 김동주 뒤를 받칠 전망이다.

외야수는 이택근(현대)과 15일 합류하는 이병규(주니치 드래곤즈)가 두 자리를 예약했고 발이 빠른 이종욱(두산)과 이대형(LG)이 상황에 따라 번갈아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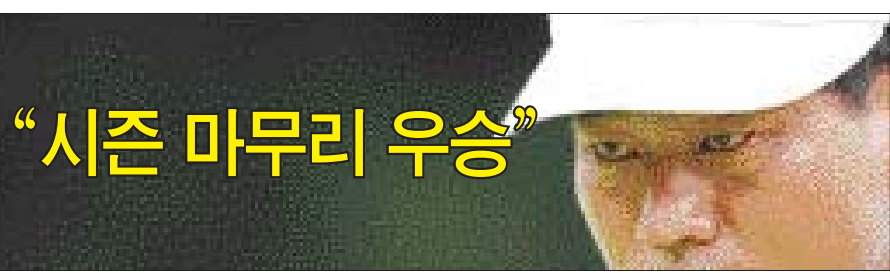
박재홍(SK) 대체 선수인 외야수 민병현(두산)은 대타나 대수비 등 백업요원으로 활약한다.

이에 따라 중심타선에 이병규-김동주-이대호가 포진하고 토타지는 이종욱과 이대형, 정근우 중 두 명이 테이볼 세터진에 배치될 전망이다. 나머지 고영민과 박진만, 박경완 등은 하위타선을 채운다.

선동열 수석코치가 투수 운용을 책임진 마운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상비군이었던 장원삼(현대)이 막자로 합류함에 따라 12명 중 3명은 탈락이 불가피하고 좌완은 5명으로 고정됐다. 우완 2명과 좌완 1명이 집을 싸게 되는 것이다.

선발진은 올림픽 예선 일본전 출격이 유력한 ‘좌완 특급’ 류현진(한화), 대만전 선발 후보인 우완 류제국(태평양), 박찬호(LA 다저스), 이승화(두산)과 좌완 전병호(삼성)로 구성돼 있다.

마무리는 오승환(삼성)과 정대현(SK)이 번갈아 맡고 볼펜진의 좌완 베테랑 송진우(한화)와 류택현(LG), 한기주(KIA), 권혁(삼성)도 대표팀에 남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시즌 마무리 우승”

한국 상금왕·신인왕 김경태

日 단롭피닉스토너먼트 출전

한국프로골프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상금왕과 신인왕을 석권한 ‘슈퍼루키’ 김경태(21·신한은행)가 향후 주무대로 삼을 일본 프로골프투어대회에 도전장을 냈다.

김경태는 15일부터 나흘간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의 피닉스골프장(파70·6천901야드)에서 열릴 일본프로골프투어 단롭피닉스토너먼트에 출전한다.

단롭피닉스토너먼트는 총상금 2억엔에 우승 상금이 4천만엔에 이르러 일본프로골프투어대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특급 대회.

출전 선수가 63명 뿐인데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유럽프로골프투어에서 뛰고 있는 정상급 선수를 여럿 불러들인 탓에 일본프로골프투어에서 제법 이름있는 선수들도 출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대회이다.

김경태는 한국프로골프 상금왕 자격으로 이 대회에 초청을 받았다. 아시아투어 싱가포르오픈과 유럽투어 HSBC챔피언스에 이어 해외 투어 세번째 대회에 나서는 김경태에게 단롭피닉스토너먼트에 나서는 각오가 남다르다.

한편 하석호(34)와 장익제(34·하이트)도 초청장을 받아 한국 선수 4명이 일본 최고 선수, 그리고 세계 정상급 스타들과 우승을 다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일 유럽골프 UBS홍콩오픈

최경주 올 마지막 정상 도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올해 마지막 투어 대회 우승컵 사냥에 나선다.

무대는 아시아 원정 3연전 가운데 마지막 일정이 유럽프로골프 투어 UBS홍콩오픈.

15일부터 나흘 동안 홍콩골프장(파70·6천703야드)에서 열리는 UBS홍콩오픈은 최경주가 올해 출전하는 마지막 투어 대회이다. 12월에 열리는 타깃월드챔피언십이 남아 있지만 이는 정규 투어가 아닌 이벤트 대회이다.

2003년부터 5년 연속 이 대회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홍콩골프장을 이제는 눈 감고도 코스 구성구석을 파악할만큼 익숙하다.

그렇지만 그동안 성적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다. 2003년 공동25위, 2004년 공동55위, 그리고 2005년 준우승과 작년에는 공동42위였다.

그동안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호세 마리아 올라사발, 미겔 앙헬 헤메네스, 호세 마누엘 라라(이상 스페인), 폴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프레드릭 아콕슨(스웨덴) 등이 유럽투어의 강호들이었지만 최경주가 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번 대회에도 헤메네스와 라라 등 역대 챔피언과 레티프 구센, 트레버 이블만(이상 남아공), 데이비드 하웰(잉글랜드), 안드레스 로메로(아르헨티나), 폴 맥킨리(아일랜드), 토마스 비운(덴마크), 마이크 웨어(캐나다) 등 상위 랭커들이 대거 참가하지만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 최경주(12위)가 으뜸이다.

이블만(20위), 구센(21위), 로메로(28위), 웨어(34위) 등 그나마 50위 이내에 포진한 선수들이다.

코스에 익숙하고 우승을 다룰 경쟁자가 많지 않아 최경주는 아시아 원정을 기분좋은 우승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기회다.

최경주는 “코스가 은근히 까다롭다. 바디가 쉽게 나오기도 하지만 클럽 14개를 끌고 루 잘 다뤄야 타수를 줄일 수 있는 코스”라면서 “조심스럽게 공략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내년 출전권을 확보한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와 배상문(21·캘러웨이), 석종율(39·캘러웨이) 등도 최경주의 홍콩 원정에 동행한다.

‘세리의 꿈’ 현실로... ‘명예의 전당’ 입성

어제 입회식...최연소 기록

“어릴 때 부모님께서 기왕이면 큰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 꿈이 이뤄졌습니다”

한국 골프의 상징인 박세리(30·CJ)가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거스틴의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에 정식으로 발을 디뎠다.

199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퀼리파인스쿨에 수석으로 합격한 박세리는 1998년 신인으로 메이저대회 두 차례 우승 등 4승을 올리며 단숨에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고 지난 2004년 미켈롭울트라오픈까지 24승을 따내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을 갖춘 뒤 꼭 3년만에 입회식을 치른 것이다.

박세리는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 가운데 하나인 ‘현역으로 10년 활동’을 지난 5월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에서 채웠다.

3천여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대선배 낸시 로페스(미국)의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오른 박세리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세 환한 미소와 함께 120명 밖에 없는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된 소감을 차분하게 밝혔다.

“모든 사람들이 제게 한국여자골프의 선구자라고 말했다”고 운을 뗀 박세리는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외롭다. 압박감도 여간 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박세리는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박세리는 올해 45명에 이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코리언 군단’의 리더라며 많은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이 박세리의 성공을 보고 미국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박세리 선수에게 전문을 보내 축하했다. /최재호기자 lion@



박세리가 13일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에 있는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에서 열린 명예의 전당 입회식 중 낸시 로페스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자신의 명예의 전당 트로피를 치켜들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었다. 이어 박세리는 “하지만 모두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 간다고 생각하면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고 이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후배들과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날 박세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상금왕을 세차례 지낸 커티 스토크(미국), 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19승을 올린 허버트 그린(미국), 그리고 브리티시오픈을 제패한 쉐넌 베이글(호주), 3차례 브리티시오픈을 제패한 조 카(아일랜드) 등과 함께 입회식을 가졌다.

한지 언론은 명예의 전당에 최연소 입회 기록을 세운 박세리에게도 상당한 비중을 줬다.

AP 통신은 메이저대회 5승을 비롯해 24승을 올린 박세리는 올해 45명에 이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코리언 군단’의 리더라며 많은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이 박세리의 성공을 보고 미국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